

【 해외금융 뉴스: 세계 】

한국 · 대만 · 홍콩 · 싱가포르 자본유입 크게 증가

□ IMF는 최근 일부 아시아 국가의 GDP 대비 자본유입 비율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발표함.

- 한국·대만·홍콩·싱가포르 지역의 GDP 대비 자본유입 비율은 2010년 1/4분기에 6.77%를 기록하면서 과거 최고 수준(2000년 3/4분기 2.78%)을 상회함.
 - 홍콩은 은행 차입이 증가하였고, 한국은 증권투자(portfolio debt)를 통한 자본유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아세안 5개국은 증권투자를 통한 자본유입 증가가 직접투자 및 은행 차입 감소를 상쇄함으로써 자본유입 비율이 3.6%에 그쳤으며, 중국과 인도는 각각 4.02%, 5.87%를 기록하면서 최고 수준(6.08%, 8.66%)에 미달함.
- * 아시아(아세안 5개국, 한국·대만·홍콩·싱가포르, 중국, 인도)의 자본유입 급등 기간은
 - ①1990년대 초부터 1997~98년까지, ②2000년 초부터 2008년 금융위기발생 전까지, ③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됨.

□ IMF는 아시아지역으로 자본 유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이 지역의 성장 전망과 함께 글로벌 유동성 과잉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적 대응을 제안함.

- 글로벌 유동성 과잉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모두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한 것에 기인함.
- IMF는 아시아지역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아직까지 자본유입이 크지 않아 금융시장 안정에 큰 위협요인이 되지 못하지만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지고 물가상승과 자산시장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.
-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축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며, 거시건전성 조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.
 - 적절한 통화정책적 대응이 없으면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도입해도 자본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.

(Wall Street Journal 4/28, IMF 4/28)